

##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 종로구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인가

### 정문헌 종로구청장 지난 19일 구보에 고시

종로구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

종로구는 지난 19일 구보를 통해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했는데, 변경안은 정계천변 건축물 최고높이를 기존 71.8m에서 141.09m로 높이고, 종로변도 54m에서 98.7m로 늘리면서 건축물 최고 층수를 20층에서 38층으로 변경했다.

종로구의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는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유찬종 민선 9기 종로구청장 당선자는 지난 11일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등 모든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라고 구청 측에 통보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유 당선인은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는 종로구민의 의견과 함께 문화재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돼야 된다"며, "인허가 문제는 서울시와 다시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유 당선인은 아울러 "인허가를



건축물 최고 층수 20층에서 38층으로 변경  
신입 구청장 당선자 인허가 중단 요구 거부

강행하면 해당 부서 직원들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는 경고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구청장은 인기 2주 정도를 앞두고, 당초 이달 24일까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여부를 확정할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를 전격적으로 직접 기안하여 결재를 하고, 고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구청장이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하면서 재개발사업은 후속 인허가와 착공 준비 단계로 넘어가게 됐으며,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이후 철거와 착공 단계로 넘어가는데, 문제는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 명령이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서울시와 종로구, SH에 영향평가를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종로구의 인가 고

시가 이뤄진 만큼 국가유산청이 추가 행정조치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부, 국토교통부가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 문체부나 국토부가 정부를 대표해 인가 취소 처분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인가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면서 대응 조치를 위한 실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구청장이 직접 변경안을 기안하고 결재까지 한 행위와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 반영 전 인허가를 진행하지 말라는 행정 명령을 무시한 부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현직 구청장으로 신입 구청장으로 교체되는 시점에서 당선자의 인허가 중단 요구에 반해 현 구청장의 전격적인 인허가 결재 및 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 직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 및 적정성 검토가 진행될 모양새다. 결국 현직과 신입 구청장과의 갈등도 함께 불거질 전망이다. 귀추를 모으는 모습이다.

# 유찬종 당선인 인수위원회 출범

### 5개 분과 15명 인수위원과 자문위원 구성 오는 7월 20일까지 공약 실행 로드맵 완성



"인수위원회 활동은 선거 과정에서 구민께 약속드린 '주민 뜻대로, 구민을 이롭게, 종로를 새롭게'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지난 16일 구청 인수위원회 출범식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종로의 새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종로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이날 15시 종로구청 경희궁 별관에서 출범식을 열었는데, 행사에는 유 당선인과 주영은 인수위원장(前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원장), 황금연 자문위원장(문화예술학 박사), 인수위원, 자문위원, 관계자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인수위원회는 5개 분과 15명 인수위원과 40명 자문위원단으로 구성, 오는 7월 20일까지 구청 전반을 들여다보고 주요 공약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민선 9기의 비전과 정책 좌표를 세운다.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변화 과정을 발굴하고, 차질 없는 인수인계와 안정적 출발을 뒷받침할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모으는 방침이다.

활동의 중심축은 구민과 약속한 5대 핵심 공약이다. 인수위원회는 ▲생활경제·일자리 회복 프로젝트, 다시 살아가는 종로경제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안심하는 종로 ▲미래를 배우고 세계가 찾는 문화도시 종로 ▲더 살기 좋은 종로, 삶이 편안한 생활환경 ▲교통 불편은 줄이고, 주민과 더 가까운 종로를 축으로 정책과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다. 조직 구성은 ▲행정경제 ▲문화환경 ▲건강복지 ▲도시관리 ▲안전시설 등 5개 분과로 나뉘, 인수위원 15명과 자문위원 40명 등 분야별 전문가 55명이 합류해 공약 이행계획을 검토하고 주요 현안을 분석하며 정책 자문에 나선다.

종로구청 별관 13층에 마련한 '인수위' 사무실은 7월 20일까지 운영하는데, 이 기간 부서별 업무보고와 주요 현안 점검, 공약 이행계획 검토, 재정여건 분석 등을 차례로 진행하

면서 이를 토대로 민선 9기 구청 운영의 큰 줄기와 우선 추진 과제를 확정한다.

이와관련, 유찬종 당선자는 "이번 인수위원회는 전문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구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히며,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신 신뢰와 기대를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슴 깊이 새기고, 구민의 목소리를 구청 운영의 출발점으로 삼아 종로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종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명단

연번	분과명	성명	대표경력
1		주영은	연세대학교 경경대학원 원장 연세대학교박사
2	행정경제	이성철	주요리협회 회장
3		전영준	제8대 종로구의회의 의원 제21대이재명대통령후보종로특별보안장
4		이방수	한양대학교 졸업 LG에너지솔루션사원
5	문화환경	임한중	이태리 F. TORREFRANCA 국립음악원 졸업 현)NEWMUSICCOMPANY오페라단대표
6		송경희	주계예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학 박사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주)대표
7		백도영	미국 허버트대학교 대학원 산업의학 박사 국립암센터암예방사업부이사
8	건강복지	진유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사)선덕원원장
9		권혁정	(전)대한민국국무회의 부회장 종로구체육회장
10		배안용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석사 한국기독교장로회서울교회담당목사(2008년~)
11	도시관리	강영수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박사 주)에코메이커건축사무소(주)대표
12		김원현	건국대학교 부속신대학원 석사 목조건축협회부회장,삼우리건설(주)대표이사
13		선규경	전)종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4	안전시설	이정훈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LKB평안대표변호사
15		김천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관광 석사 전)종로구행정국장

## 운중기

■ 더불어민주당 광풍으로 휩쓴 6.3 종로구 지방선거. 현역 구청장 불패 신화도 깨지고 전통적 텃밭의 시의원 선거도 패한 국민의힘. 원인은 주민이 안다.

■ 제10대 종로구의회의원 선거에서 10명 중 6명으로 다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종로 자치 권력을 4년 전으로 완전히 회복.

■ 지난 6.3 종로구 지방선거에서 종로구 투표율은 63.6%로 지난번 2022년 선거보다 무려 약 10% 증가. 투표율 증가의 약 80%가 더불어민주당 지지.

##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종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 2030년까지 아동친화도시 자격 유지

종로구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Child Friendly City, CFC) 상위단계 재인증'을 획득,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종로구는 이에 따라, 2026년 6월 18일부터 2030년 6월 17일까지 4년간 아동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네트워크에서 한층 선도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상위단계 재인증은 종로구가 추진해 온 아동권리 증진 정책과 아동친화 환경 조성 노력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다.

종로구는 그동안 '아동과 함께

발맞추는 도시, 동행 종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아동 권리 향상에 매진해 왔다. 먼저 2016년 11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청소년구정평가단 등 다층적인 아동참여기구를 통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녹여냈으며, 아동권리옹호퍼즐을 위촉해 권리 침해 시 구제 체계를 두텁게 했다. 아동권리 시민감사 양성과정,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참여교육도 꾸준히 운영했다.

종로구는 2026년 하반기에는 관내 아동·보호자·아동 관계자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맞춤형 아동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아울러 2026년 7월까지 송인1동 소담누리 놀이터, 2026년 10월 신영동 공공형 실내 놀이터, 2027년 10월(예정) 삼정공원 목조 실내 놀이터를 잇따라 개관하며 아동친화공간 확충에 집중한다.

전통 놀이를 기반으로 한 현대식 실내 놀이공간 '서울형 키즈카페 송인1동 소담누리 놀이터', 유희 공공재산인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을 리모델링하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종로만의 특색 있는 목조 건축 문화를 접목한 '삼정공원 실내 놀이터'가 탄생하면 종로만의 아동친화 인프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과 문화의 종로  
미래를 여는 의회

##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에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단단한 길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9대 의회는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고  
그 길 위에서 더 크게 도약할 제10대 의회를 응원합니다

제9대 종로구의회  
2022년 7월 ~ 2026년 6월



**'2026 북중미 월드컵'**

# 2만여 명 응원전 펼쳐, 한국 대 멕시코 경기 종로소방서, 소방인력과 차량 등 현장 배치 시민 안전사고 대비 현장 안전관리 등 실시



종로소방서(서장 장만석)는 지난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2차전(대 멕시코전) 거리 응원 행사 현장에 소방력을 배치하고 소방 안전대책을 추진했다.

이번 거리 응원은 대한축구협회 주최했으며,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만여 명의 시민이 모여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했다.

종로소방서는 다수 인파가 운집하는 행사 특성을 고려해 대시민 안전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이날 종로소방서는 장만석 종로소방서장

의 현장 지휘 아래 상황관리반과 구조·구급지원반, 신속대응반 등 총 36명의 소방인력과 차량 4대를 현장에 배치했다. 현장지휘소를 운영하며 행사장 전 구역의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펌프차 1대와 구급차 2대를 전진 배치해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했다.

또한 행사에 앞서 무대와 제철존, 관람구역 등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화기 등 초기 소화 시설 비치 상태와 비상대피로 확보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관람객 대피 유도 요

령에 대한 안전교육을 병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관람객 밀집이 예상되는 A·B·C 구역과 응급의료소 주변에 구조·구급인력을 배치하고,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에 집중했다.

장만석 종로소방서장은 "많은 시민이 함께하는 월드컵 거리 응원 행사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현장 소방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응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광화문 주요 무대를 순찰하는 장만석 종로소방서장.



▲이순신 동상 주변 등 응원장소 순찰하는 소방대원들.



**종·로·사·람·들**

정문헌 종로구청장  
여성누리단 평가회 개최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오는 26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2026년 상반기 종합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유찬중 구청장 당선자  
인수위원회 출범, 진행



유찬중 민선 9기 종로구청장 당선자는 지난 16일부터 종로구청 별관에서 구청 인수위원회 5개 분과 15명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인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도규 중부교육장  
역사지원 탐방 연수



최도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난 11일 관내 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2026 중부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역사지원 탐방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차정인 종로구 협의회장  
2분기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종로구협의회 차정인 회장은 지난 11일 창신동 SW컨벤션센터에서 자문위원 90여 명과 함께 '2026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평화문화 확산 역할 수행"**

민주 평·통 자문회의의 종로구협의회  
2026년 2분기 정기회의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종로구협의회가 지난 11일 '2026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종로구 창신동 S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정기회의에는 과상인 국회의원과 자문위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복합위기 현실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관리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차정인 협의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반도는 국제적인 파도에 가장 민감한 곳으로, 불확실한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더 정교하고 단단한 평화관리 능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중동발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전 지구적 생존을 위해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세계 평화 정착이 절실한 시점에서 한반도의 평화관리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협의회는 자문위원 1인당 50인 국민 인터뷰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지역 통일 활동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평화통일 교실,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통일 미래세대 육성, 평화문화 확산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밝히기도 했다.

**응원 열기 뜨거운 광화문광장  
한마음 한뜻, 승리 기원**



**- 19층 스카이라운지에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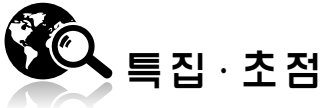
# "서울 도성 정취와 장어 요리 진수를 즐기세요"



**반구정**  
진짜 100% 투썸 한우1++ 최저가  
\*진짜 100% 투썸 한우1++ \*무첨가 아님경우 10000% 보장합니다 \*전국 최저가 보장합니다  
투썸한우1++ 풍천민물장어 도드람한돈(보쌈냉면)  
**9,900 원 9,900 원 7,000 원**  
\*국내산 마르니카/민물장어가 아닐경우 10000% 보장합니다 \*매일 한정 수량만 판매합니다



**종로 반구정 민물장어**  
(100% 국내산)  
서울 종로구 창신동 327-2 (금호 팰리스빌딩 19층)  
예약 : (02)766-2303 · (02) 741-3727  
FAX : (02) 6731-2303 / H.P : 010-2639-2279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로 새 논란

## 서울시 심의 완료, 종로구 전격 인가 고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부지 전경.

종로구가 지난 16일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인가하고 구보에 고시를 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0월경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종로 변 54m에서 98.7m로 완화하고, 청계천 변도 71.8m에서 141.09m로 크게 높이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유산청은 영향평가를 마친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로 경계로부터 18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상 100m 이내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세계유산상 상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려면 시간이 적어도 2년 내지 4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장기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실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은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만2천여 평방미터에 건물 4개 동을 짓는 사업이다. 건물 연면적도 46만여 평방미터에 달한다.

서울시는 따라서 지난 5일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조건부 의결했다. 이는 서울시 차원의 재개발정비사업 통합심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관문인 종로구의 사업시행인가만을 남겨둔 상태였고, 종로구는 오는 24일 까지 인가 여부를 확정 지을 예정이었다.

### 유찬종 구청장 당선자 인허가 중단 불구에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행정소송은 아직 진행 국가유산청 시정명령, 취소처분도 막판 변수



▲세운4구역 주민들의 사업시행 촉구 모습.

그런데 변수가 생긴 것은 지난 6.3 지방자치 선거에서 정문헌 현 구청장이 낙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유찬종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유찬종 당선인은 지난 11일 종로구 인수위원회를 통해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등 모든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라고 구청 측에 통보를 했다. 그러니까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에 제동을 건 셈이다.

유찬종 당선자는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는 종로구민의 의견과 함께 문화재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돼야 된다”며, “인허가 문제는 서울시와 다시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허가를 강행하면 해당 부서 직원들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경고도 했다. 한마디로 강력한 중단 요청이다.

하지만 정문헌 구청장은 임기 2주 정도를 남겨두고 이를 전격적으로 인가를 했다. 구청 담당 국장과 도시개발과 직원들이 부재한 상태이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 기안을 해서 결재와 함께 구보에 고시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한 논란이 크게 발생한 것이다.

그동안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측이 유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도 하다. 유산청의 사업계획 보완 이행명령에 반발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종로구의 이번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고시되면서 재개발사업은 후속 인허가와 착공 준비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변경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를 테면 분양신청과 관리분계계획 인가를 거쳐 이주·철거와 착공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막판 변수도 남아 있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인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조항에 따라 주무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따르지 않으면 취소하거나 정지도 가능하다. 실제적으로 국가유산청은 추가 행정조치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부, 국토교통부가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 문화부나 국토부가 정부를 대표해 인가 취소 처분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가유산청이 이번 인가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면서 대응 조치를 위한 실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결국 지난 200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사업성 부족과 국가유산청 심의에 제동이 걸리면서 22년간 표류된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은 여전히 불투명한 전망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국가유산청 간 행정소송 결과도 나와야 하고, 국가유산청의 법적 또는 행정명령 이행 등도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의 권리침해와 지역발전 저해 그리고 주민 갈등과 정파적 대립 등이 더 큰 난제로 남아 있는 모습이다. 이번 종로구의 고시로 인한 신·구 구청장 간 갈등과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압박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李)

▶관련 칼럼 7면



제언

## “당선자들에게 거는 기대” (구청 직원과 함께 가는 리더십 필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 조 섭 전 종로구 지부장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牧民心書)가 주는 교훈은 목민관의 리더십입니다. 정약용은 제방 공사를 할 때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리더십의 핵심 요지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권력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는 또한 공정함과 책임감 그리고 배려가 쌓일 때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 지도자들이 이제 곧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들어갑니다. 종로구청에서 31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종로구지부장을 두 번이나 지낸 경험을 근거로 이들 새로운 종로구 지방자치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정약용 선생의 리더십입니다.

지방자치의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로 진행됨을 감안하면 종로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면 종로 자치입니다. 따라서 종로 자치는 지방자치 지도자와 공무원들의 합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제도에서 주변인 취급을 받는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를 최일선에서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혼 없는 사무원처럼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지역의 민주화가 대두되면서 주민 권리만 강조되는 추세를 보이며 구청 문턱이 낮아지고, 더불어 공무원들조차 가버리 취급되는 잘못된 풍조가 만연되는 오류가 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입니다. 시대가 주민자치로 전환되면서 시대적 사명과 정신에 입각한 공복자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할 뿐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30년 넘게 진행되면서 지방자치 지도자들이 욕상욕 방식으로 공무원 위에 군림하는듯한 모습도 은연중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종로 자치 발전을 위한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역할과 임무가 폄하되는 모습은 분명 종로 자치 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구청과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당선자들은 지방자치 권력 행위가 개인의 일선 영달과 사적인 명예 추구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시길 기대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처럼 공정함과 책임감 그리고 배려가 쌓인 신뢰의 리더십으로 구청 공무원들과 협력적 상호작용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선 구청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존중하며 새로운 미래 종로발전을 위한 리더십이 발휘될 때 진정한 종로구 지방자치 발전이 이뤄진다고 봅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종로구 지방자치 발전에서 반드시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 “종로에는 34년 전통의 종로저널이 있습니다”



“종로저널을 읽으시면 종로가 보입니다.”

- 대한민국 1번지  
종로의 역사와 전통이 보입니다.
- 600년 문화속에  
종로의 정치, 경제, 사회가 있습니다.
- 종로자치 30년의  
종로 민주화와 주민 알권리가 읽힙니다.

<구독문의 : 02-723-5597>

PS : 국민은행 : 031601-04-019535  
신한은행 : 140-007-326220





종로문화재단 누리집  
공지사항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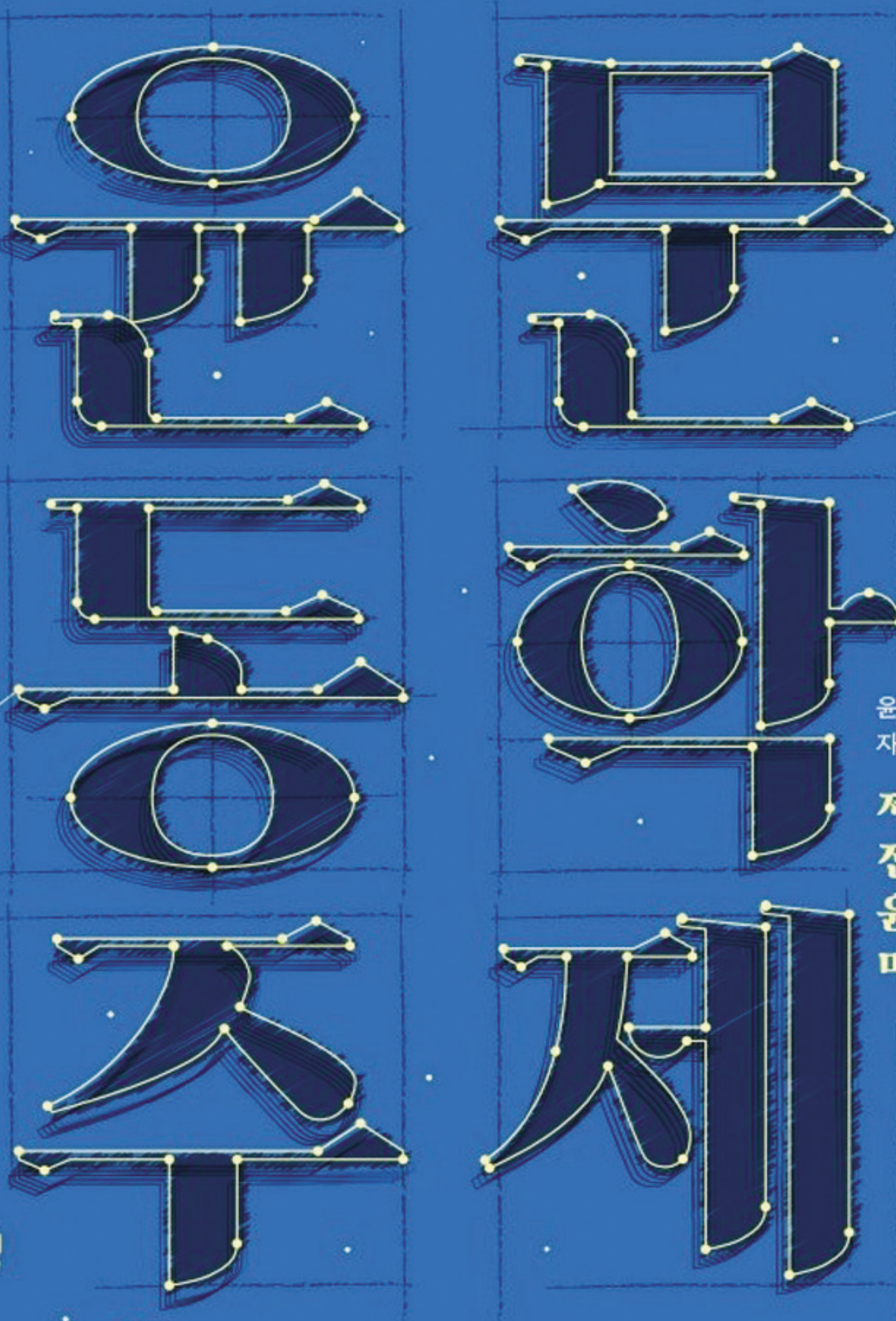
한글날 제정 100주년

# 2026 운동주문학제

공모형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운동주 시인의  
작품을 활용한  
장르 불문 창작곡 경연

**제12회  
전국  
운동주  
창작음악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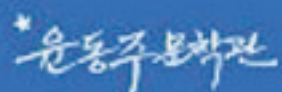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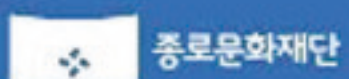


운동주 시인을 주제로 한  
자유로운 창작미디어 공모

**제2회  
전국  
운동주  
미디어공모전**

운동주 시인의 시를  
주제로 한 시화 공모

**제13회  
전국 초·중생  
운동주  
시화공모전**



후원

